어린이집 교사 제외 등 사회상규 기준 합리적 개선

김영란법 시행 100일…유권해석 주요 내용과 남은 쟁점

대학교수 제자 취업 추천 민간기업은 괜찮아
스승의 날 카네이션 쪽지예산은 여전히 논란

정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일부 조항이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친다는 지적에 따라 법 시행 직후부터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하고 문제 해소에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이 법 때문에 문제가 드러나면 사회상규를 기준으로 적절하게 조율하고, 정부 차원에서 농수축산업 등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주요 유권해석=정부는 법 시행 초기 권익위의 오락가락 해석으로 혼란이 발생하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TF를 만들었다. TF는 현재까지 7차례 정례회의를 열었다.

주요 유권해석 사례로는 어린이집 교사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이 꼽힌다. TF는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대표자는 공무수행 사인(私人)에 해당해 법의 적용을 받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법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학칙에 근거해 공직자 등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아울러 공연이나 스포츠경기를 취재하기 위한 용도의 '프레스 티켓'은 5만원이 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허용된다.

대학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의 취업을 추천하는 행위도 민간기업 관계자가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군인 등 특정 직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할인 프로그램도 허용된다.

◇남은 쟁점은=남은 쟁점 가운데 하나는 스승의 날에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줄 수 있는지 여부다.

권익위는 당초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잉해석이라는 비판에 직면, 최근에는 학생 대표가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허용된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아직 부처 간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최종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쪽지 예산에 대한 입장도 여전히 어정쩡하다. 권익위는 쪽지예산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관계부처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쪽지예산은 청탁금지법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기획재정부가 쪽지예산을 금지한다면 이를 존중한다는 앞뒤가 안 맞는 답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에 쪽지예산과 다를 바 없는 각종 민원·청탁성 예산이 어김없이 반복됐다. 또 기획재정부는 소비촉진을 위해 설이나 추석 등의 명절에 한시적으로 청탁금지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권익위는 한시적 유예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권익위는 지난해 말까지 반복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담은 해설집을 제작해 공공기관에 배포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제작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최권일기자 cki@·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100일을 하루 앞둔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마련된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에서 관계자가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선거제도 개혁·개헌 토론회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제도개혁 그리고 개헌' 토론회에서 토론회를 주최한 원혜영 의원(오른쪽 셋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원혜영 의원,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합뉴스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급물살

3野 당론 추진에 신당 동참 입장 발표
4개 정당 추진땐 1월 국회 통과 가능성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 조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이미 이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혁보수신당(가칭)도 4일 오전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다.

정병국 신당 창당추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창당 준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기로) 전체 합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실시 되는 조기대선 전에 관련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이라며 1월 임시 국회 내 통과를 시사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터져 나오면서 재논의하기로 입장을 뒤집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늘 원내대표도 회의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할 사안을 창당 준비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됐다"면서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다. 다시 절차를 밟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큰 틀에서 그렇게 방향을 잡은 건 맞지만 완전히 합의돼 대표 법안으로서 당론 발의한다고 하기엔 이른 상황"이라면서 "의원들도 많이 없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합의를 했다고 결정했다"고 반발했다.

더욱이 지난 주말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30명 중 14명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던 상황이라 이 방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기존 야당들은 일찍부터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추진해왔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연령 18세 인하는 각 당의 유불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참정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관철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최근 2월 국회를 앞두고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정치사회 개혁을 선정, 그 세부 법안으로 선거연령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꼽았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또한 지난해 9월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투표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만일 개혁보수신당이 논란 끝에라도 선거 연령 하향에 찬성하게 되면 점유 의석이 200석에 가까운 네 정당이 모두 참여해 1월 임시국회 통과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 경우 19대 대선부터 만 18세 시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친숙한 닭그림…폼페이 유적서도 발굴

김은영의 '그림 생각'

(170) 프레스코화

'수탉과 과일이 있는 정물화'

올해가 닭의 해이기도 하고 AI(조류인플루엔자) 여파로 인해 계란파동이 이어지기도 해 새해 벽두부터 닭과 계란이 단연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다. 평소 후라이드 치킨과 계란으로 만든 모든 요리를 좋아하는 까닭에 계란 품귀현상이 당분간 계속 된다고 하니 계란 소식에 자꾸 마음이 간다. 풍요로울 때는 모르고 지내다가 결핍의 순간에 그 존재가 애틋해지는 세상사를 계란을 통해 새삼 깨친다.

우리가 닭과 함께 살아온 날이 오래되었던 만큼 닭은 회화에서 친근하게 등장하는 소재다. 가까이 '암탉과 보송보송한 병아리' 그림은 물론 공격적이고 활기찬 수탉 그림을 인상적으로 남긴 피카소를 비롯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고구려 벽화고분인 무용총 천장에도 한 쌍의 닭 그림이 있는가 하면 변상벽의 '계도'도 유명하다.

고대 로마시대의 폼페이 벽화에서도 닭을 만날 수 있다. 부유한 전원도시였던 폼페이는 79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멈춰진 시간 속에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간직했던 곳으로 이 도시의 거의 모든 집과 별장에는 정물화나 동물화, 풍경화 등 다양한 회화 장르를 동원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고 한다.

작품 '수탉과 과일이 있는 정물화' 역시 폼페이 유적지에서 발굴된 프레스코화로 석류를 쪼아 먹고 있는 수탉과 그 뒤로 석류와 무화과, 배가 선반 위에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회화사에서 가장 오래된 기법으로 여겨지는 '프레스코화'는 이탈리어로 '신선하다'는 뜻이며 벽에 바른 회반죽이 채 마르기 전에 그려진 벽화를 의미한다. 회벽이 마르기 전 신속하고 긴박하게 그림을 그려야 하므로 프레스코화는 솜씨 있는 화가여야 도전할 수 있는 장르이기도 했다.

그랬던 만큼 고대 로마에 이어 르네상스시기에 부흥했던 프레스코화는 조토, 미켈란젤로 등 거장들이 성당의 천정이나 벽화 등에 불후의 걸작들을 남겼고 지금까지도 변색되지 않아 당대 거장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정도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